

2008. 4. 7 제188호

# 세계도시동향

# 세계도시

2008. 4. 7 제188호

## 목 차

### [벤치마킹 사례]

도시기본계획을 보완하는 런던市 ‘권역별 발전계획’(SRDFs)

### 문화·디자인

1. 선거 포스터도 ‘깨끗한 도시법’ 따라야 (브라질 상파울루市)
2. 신축·공사 중인 건축물, 동영상으로 보세요 (파리)
3. 도시 미관 위해 태양열 발전장치도 이왕이면 ‘다홍치마’ (런던)

### 산업·경제

4. 세계 자동차 경주대회 개최로 관광산업도 ‘썩썩’ (브라질 쿠리치바市)
5. 市가 앞장서 공정무역 홍보 (영국 리버풀市)
6.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을 잇는 ‘디지털 커널 네트워크’(일본 교토府)
7. ‘학연도시 新시대 계획’ 3년 맞아 재검토 (일본 교토府)
8. 성차별 개선 공동 노력 촉구 (런던)
9. 포인트, 전자머니...마음대로 골라 계산하세요 (도쿄都 메구로區)

## 목 차

### 건강·복지

10. 세대 간 통합센터에서는 세대차이 없어 (런던)
11. 시립 도서관에 신개념 멀티미디어 서비스 실시 (파리)
12. 임대주택 세입자에게 TV·인터넷·전화를 1유로에 제공 (파리)

### 방재·안전

13. 토사재해 정보 운용 시작 (도쿄)

### 도시환경

14. 굴 양식으로 운하 자연정화 추진 (뉴욕)
15. 주유소에서 대체에너지 'E85' 가득이요 (캘리포니아주)
16. CO<sub>2</sub> 배출량은 '이산화탄소 계산기'로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시)
17. 항구에 친환경 '철도 화물적하장' 건설 추진 (로스앤젤레스)

### 도시교통

18. 상업로에 자전거 도로·보행로 조성 (프랑스 툴루즈시)
19. 지하철 주차장 건설로 대중교통 이용 장려 (브라질 상파울루시)
20. 신체장애 학생에게 특별 대중교통수단 제공 (브라질 쿠리치바시)

### 도시계획·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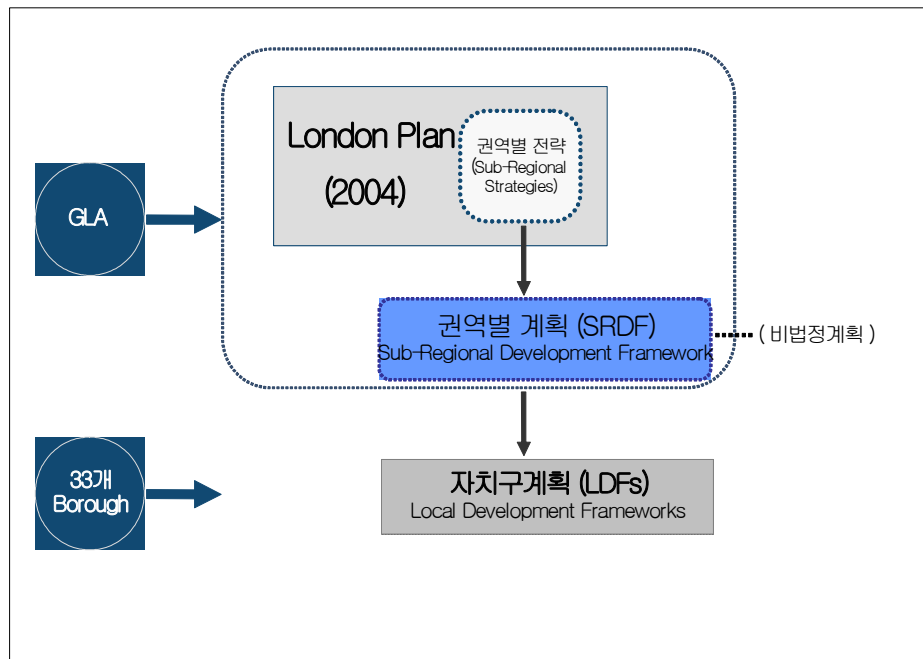
21. 지붕에 나무 심는 '살아있는 지붕' 연구 (런던)
22. 노인 맞춤형주택 건설 추진 (영국)

## [벤치마킹 사례]

도시기본계획을 보완하는 런던市 ‘권역별 발전계획’(SRDFs)

### <주요 내용>

- 32개 자치구(Boroughs)와 City of London으로 구성된 대도시 런던은, 2004년 영국 정부가 새로 도입한 도시계획시스템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에 해당하는 ‘런던 플랜’(London Plan)을 수립함. 2006년에는 ‘권역별 발전계획’(SRDFs: Sub-Regional Development Frameworks)을 수립해 보완함으로써 런던市 도시계획체계는 런던 플랜-5개 권역별 발전계획-자치구 계획(LDFs: Local Development Frameworks)의 3단계로 운영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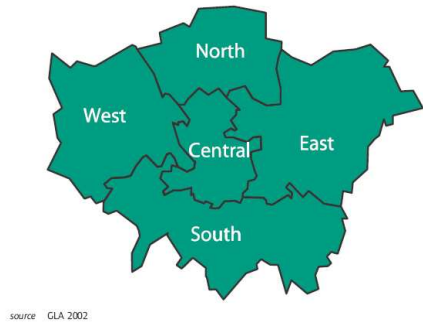


런던市의 도시계획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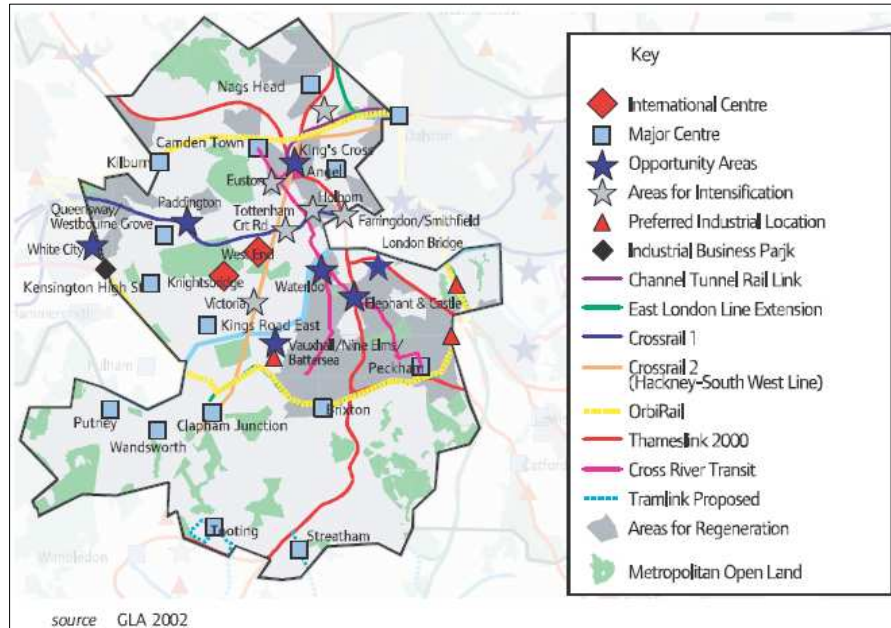
- 권역별 발전계획은, 장기적인 도시발전 구상을 제시하는 런던 플랜의 정책목표와 현안을 5개 권역(Central·East·West·North·South London)으로 나눠 구체화한 중간단계의 공간계획임.

- 권역별로 통합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인접 자치구 간 협력과 조정방향을 제시함.
- 5개 권역별로 작성된 권역별 발전계획은, 런던 플랜에서 제시한 권역 계획의 내용과 전략을 구체화해 정리한 非법정계획이지만 자치구 계획 수립 시 반드시 고려하도록 돼 있음.

| 권역 구분          | 자치구(개) | 인구(만명) |
|----------------|--------|--------|
| Central London | 7      | 150    |
| East London    | 10     | 200    |
| West London    | 6      | 150    |
| North London   | 4      | 110    |
| South London   | 6      | 130    |
| London         | 33     | 740    |



- 권역별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은, 런던 플랜이 지향하는 공간 통합적이고 다핵 중심의 발전방향이 여러 자치구와 연계돼 있기 때문임.
  - 특히 교통이나 환경 같은 사안은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넘어 상호 유기적인 협력과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음.
- 권역별 발전계획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함. 1부에는 권역의 특징과 전략목표를, 2부에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성장의 공간적 배분, 커뮤니티 활성화, 환경 개선, 개발수단과 관리 등 5개 부문에 대한 정책적 실행방안을 제시함. 부록에는 해당 권역에 대한 각종 데이터와 계획지표를 수록함.
  - 중심활동지역(Central Activity Zone), 기회지역(Opportunity Area), 개발강화지역(Areas for Intensification), 재생지역(Regeneration Areas) 등 지역 특성에 따른 개발거점을 설정함.
  - 고용 창출과 주택 공급, 사회·문화시설 계획을 교통인프라 계획과 연계해 수립하고, 교통계획은 런던市 지역 경계를 넘어 광역적으로 고려함.



런던시 도심권(Central London) 계획의 공간구조

### <해설 및 평가>

- 런던시의 권역별 발전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해당하는 런던 플랜과 각 자치구 계획을 연결하는 중간단계의 공간계획으로, 런던 플랜이 지향하는 정책목표를 구체화하면서 자치구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을 제시하는 역할을 함.
- 권역별 현안과 정책목표를 분명히 하고 계획의 일관성을 확보하면서, 자치구 및 관련 기관 간의 협력과 조정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기대됨.

### <서울시정의 현황과 문제점>

- 서울시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하지만 인구 1000만 명에 이르는 거대도시 서울의 경우, 20년 목표의 장기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를 일정한 공간단위(권역별 혹은 생활권별)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연계하는 중간단계의 계획이 필요한 실정임.

- 자치구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권역별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존 하향식 도시계획 수립방식에서 상향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자치구 발전계획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벤치마킹 시행방안>

- 서울시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생활권 계획 내용을 구체화한 부속 계획서로서 권역별 계획을 수립해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도시기본계획 수립 후 1년 내에 권역별 계획을 수립해 非법정계획으로 운영하고, 권역별 계획 수립 시 서울시 관련 실·국 및 자치구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함.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현재 16개 자치구에서 수립해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 발전구상을 같은 시기에 수립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도시기본계획 및 권역별 발전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상향식 계획수립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1990년대 중반에 수립해 2011년 목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한 경험이 있으나, 이후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이 폐지됐음.

### <벤치마킹 기대효과>

-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을 권역별로 구체화하는 중간단계의 권역별 발전계획을 수립해 운영함으로써, 도시기본계획-권역별 발전계획-도시관리계획의 계획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자치구 발전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도시기본계획 및 권역별 계획에 반영하는 등 상향식 도시계획체계를 준비할 필요가 있음.

/양재섭 도시기반연구본부 연구위원(jsyang@sdi.re.kr)

### 1. 선거 포스터도 ‘깨끗한 도시법’ 따라야 (브라질 상파울루市)

- 브라질 상파울루市는 ‘깨끗한 도시법’을 통해 청결해진 市 이미지가 2008년 시장 및 하원 선거로 인해 지저분해질 것을 우려해 새로운 선거 규정을 발표함.
- 상파울루 시장 선거운동 기간인 2008년 7월 6일~10월 5일에 선거 관련 포스터 및 캠페인에 관해 자세한 규정을 담은 팸플릿이 배포될 예정임.
- 市는 2006년부터 선거 캠페인 규정을 발표했지만 그동안 잘 지켜지지 않았으며 2008년에는 감사를 강화할 계획임. 규정 위반 시 지역선거법원에 고발할 수 있음.
- 가로수나 고가도로, 전봇대에 선거용 플래카드 부착을 금지하고 깨끗한 도시법 규정에 벗어나는 크기도 허용하지 않음.
- 4m 이상의 선거용 플래카드는 공공장소에 부착하면 안 되며, 반드시 민간 건물에 부착해야 함.

([noticias.terra.com.br/brasil/interna/0,,OI2642443-EI8139,00.html](http://noticias.terra.com.br/brasil/interna/0,,OI2642443-EI8139,00.html))

([www.estadao.com.br/geral/not\\_ger125075,0.htm](http://www.estadao.com.br/geral/not_ger125075,0.htm))

### 2. 신축·공사 중인 건축물, 동영상으로 보세요 (파리)

- 파리市 건축·도시 정보 및 자료를 전시하는 센터인 ‘파비용 드 아스날’(Pavillon de Arsenal)은 도시계획과 건축에 대한 동영상 자료를 모아 웹사이트에 공개할 계획임.
- 이슈가 되는 새로운 건축물이나 공사 중인 파리市 중요 건축물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게 됨.



- 이번 동영상 메뉴 신설에 앞서, 50여 개의 프랑스 및 국제 건축회의와 파리의 현대 건축에 관한 12개의 필름, 파리시 건축 동향에 대한 토론회 등을 웹사이트에 제공하고 있음.

·전체 영상물의 상영시간은 약 70시간이며, 실시간으로 검색이 가능함.

([www.pavillon-arsenal.com/videosenligne/index.php](http://www.pavillon-arsenal.com/videosenligne/index.php))

### 3. 도시 미관 위해 태양열 발전장치도 이왕이면 ‘다홍치마’ (런던)

○ 런던시는 2008년 2월 시청사 지붕에 태양열 발전장치를 설치하면서, 공 모양의 특이한 청사 구조의 외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존 태양열 발전장치와 다르게 알루미늄 틀이 없고 사다리꼴 모양을 한 발전판 617개를 맞춤 제작함.

- 특이한 건물 외형은 살리면서 환경을 고려한, 문화와 환경을 함께 생각한 대안에너지 건설 사업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 런던시 기후변화청이 부담한 총 예산은 54만 파운드(약 10억 4600만 원)이며, 상공·규제개혁부에서 19만 파운드(약 3억 6800만 원)를 지원받았음.

- 런던시장은 시를 대표하는 시청사 건물에 설치된 태양열 발전장치가 직접적인 환경혜택을 넘어, 지구온난화에 대처하는 런던시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상징적인 역할도 하고 있다고 평가함.



청사 외형을 그대로 살린 런던 시청사 태양열 발전장치

([www.lda.gov.uk/server/show/ConWebDoc.2493](http://www.lda.gov.uk/server/show/ConWebDoc.2493))

### 4. 세계 자동차 경주대회 개최로 관광산업도 ‘썩썩’ (브라질 쿠리치바市)

○ 브라질 쿠리치바市는 2008년 3월 2일 쿠리치바 국제 자동차경기장에서 ‘2008 세계 투어링 카 챔피언십’(WTCC)을 개최함.

- 市는 WTCC 개최를 통해 국제적인 이벤트를 열 수 있다는 저력을 보여줬음.  
·WTCC는 포뮬러 원(F1), WRC와 더불어 국제자동차연맹(FIA)이 주최하는 세계 3대 자동차 경주대회 중 하나임.
- WTCC 입장권을 식료품과 교환하는 행사도 개최해 약 52톤의 식료품을 기부받음. 이를 저소득층을 돕는 데 활용할 계획임.
- 市는 WTCC를 통해 경제 및 관광 분야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대회가 열린 2008년 3월 첫째 주말에만 호텔업계는 3000건 이상의 숙박 물을 기록했고, 요식업계도 매출이 증가함.

([www.curitiba.pr.gov.br/Noticia.aspx?n=12613](http://www.curitiba.pr.gov.br/Noticia.aspx?n=12613))

### 5. 市가 앞장서 공정무역 홍보 (영국 리버풀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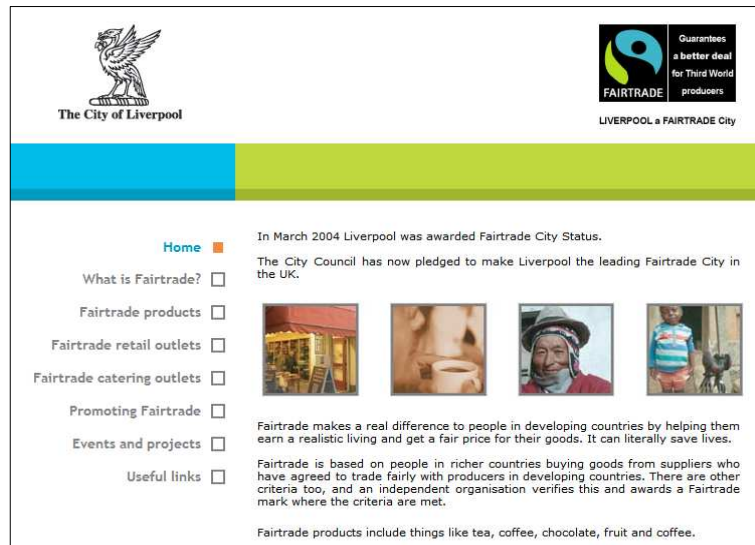
○ 영국 리버풀市는 2008년 2월 말~3월 초 공정무역의 중요성과 혜택을 널리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공정무역주간’ 행사를 개최함.

- 영국 전역 도소매점에서 공정무역 상품을 할인판매하는 이벤트를 열고, 리버풀市를 포함한 8개 도시 간 공정무역 버스투어 등 다양한 행사를 벌임.
- 생산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공정무역은 그동안 제3세계 국가와 유럽 민간단체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는데, 리버풀市가 공정무역의 전도사로 나서 주목을 받음.

·리버풀市에서 열린 한 음식축제에서 공정무역 상품으로 만든 아침식사 메뉴가 소개된 것이 계기가 돼 공정무역 단체와 시정부의 협력이 시작됐음.

- 리버풀市는 공정무역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공정무역의 취지와 필요성을 홍보하고 있음.

·공정무역 상품과 구매처 및 생산업체를 소개하는 한편, 공정무역 관련 사업 및 운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정보도 제공함.



리버풀市가 운영 중인 공정무역 홈페이지(www.fairtrade.liverpool.gov.uk)

(www.fairtrade.org.uk/get\_involved/news\_events\_and\_urgent\_actions/events\_calendar.aspx)

## 6.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을 잇는‘디지털 커널 네트워크’(일본 교토府)

○ 최근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교육, 의료, 방재, 산업, 행정 등 府民 생활 곳곳에 IT 기술이 침투해 있고, 정보량도 비약적으로 증대하고 있음. 교토府는 이러한 흐름에 대응해 교토府 지역을 잇는 고도 정보통신 기반인 ‘교토 디지털 커널 네트워크’(Kyoto Digital Canal Network)를 정비해 왔음.

- ‘커널’이란 단어는 커널(Canal: 운하 또는 수로)의 기능이 음용수 및 생활용수 공급, 수운(水運), 발전(發電) 등 도시발전의 토대가 된다는 것에 착안함.

즉 21세기를 향한 고도 정보통신 기반으로서는 새로운 초석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임.

- 교토 디지털 커널 네트워크는 府民이 교토府 지역 어디에서나 정보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토 내 교류 및 제휴를 활발하게 함으로써 매력 있는 지역 만들기에 큰 역할을 함.
- 교토 디지털 커널 네트워크를 활용한 예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
  - 교육: 교육용 콘텐츠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각 학교에 제공하고, 화상회의 시스템 등을 활용한 원격강의를 실시함으로써 학교 간 교류를 추진함.
  - 학술: 교토府에 모여 있는 50개 이상의 대학과 간사이(關西) 문화학술 연구도시의 학술 및 연구기관을 이어줌. 네트워크를 활용한 실증 실험 등 선진기술 실용화를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의료: 전문의가 없는 지역에서 고정밀 화상(畫像)을 송수신함에 따라 원격 의료진단을 실시함. 전자 진료카드로 병원 간 제휴를 도모하는 등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일 수 있음.
  - 방재: 재해 현장의 영상 및 피해 정보를 각 지방자치단체 등 방재기관에 신속하게 전달함으로써 비상 시 민첩한 초동체제를 갖추도록 함.
  - 행정: 청사 내 네트워크를 활용해 신속한 업무처리와 정보 공유를 추진함. 행정 간 전자문서 교환, 전자 신청시스템 공동 정비 등을 추진해 부민 서비스 향상과 행정 효율화를 도모함.

([www.pref.kyoto.jp/it/10500042.html](http://www.pref.kyoto.jp/it/10500042.html))

([www.pref.kyoto.jp/kanko/plan.html](http://www.pref.kyoto.jp/kanko/plan.html))

#### 한줄 뉴스

- 영국, 자치구가 '사회적 기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기업 유닛'(Social Enterprise Unit)을 정부부서 산하에 설치
- 파리市,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하면 3000유로(약 457만 원) 지원

## 7. ‘학연도시 新시대 계획’ 3년 맞아 재검토 (일본 교토府)

- 일본 교토府는 ‘학연도시 新시대 계획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계획 수립 후 3년이 지난 계획을 검토하기로 함.
  - 2004년에 수립된 학연도시 新시대 계획은 사회·경제·정세 흐름이나 기업의 변화, 국제화 등에 따른 학술연구, 산업진흥, 마을 만들기, 도시경영 등에 대해 교토府의 역할을 정립하고자 수립된 것임.
  - 정부의 움직임이나 府民과의 협동 추진을 통해 학연도시 활성화 도모를 목표로 함.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음.
    - 국제 거점으로서의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환경을 정비하며, 산·학·공(産學公: 산업·학술·공공)의 제휴를 추진해 지식을 쌓음. 지적 클러스터 사업성과를 사업화해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新산업을 창출하는 등 산업진흥을 도모함.
    - 학연도시의 이념을 지켜가면서 연구와 제품화를 직결하는 혁신적인 기업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능 도입 및 토지이용을 촉진함.
    - 해외 연구기관과의 제휴·교류를 도모하고 외국인 연구자의 연구 및 생활환경 정비를 검토해 열린 학연 도시를 실현함.
    - 새로운 시설의 입지나 프로젝트 구상에 있어서도 주민 참여를 도모해 매력적인 마을 만들기를 진행하고, 도시 운영에 있어서도 국가기관과 공동으로 검토함으로써 운영주체를 정비함.

([www.pref.kyoto.jp/bunkaga/planindex.html](http://www.pref.kyoto.jp/bunkaga/planindex.html))

([www.pref.kyoto.jp/bunkaga/plan.html](http://www.pref.kyoto.jp/bunkaga/plan.html))

## 8. 성차별 개선 공동 노력 촉구 (런던)

- 런던市는 2008년 2월 500여 명의 여성 기업인과 사회지도자 등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경제부문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네 번째 보고서를 발표함.

- 보고서에 따르면, 성차별적인 사회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으면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함.
  - 여성이 남성에 비해 평균 15% 낮은 대우를 받고 일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으로 갈수록 성별 임금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
  - 정기적으로 고용평등에 대한 자체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기업 수가 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임금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 공공조직, 행정 및 보건 부문 등 이미 여성인력 비율이 높은 조직에 여성이 몰리는 고용편중 현상도 가중되는 것으로 조사됨.
- 런던市는 성별 임금격차 등 성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기업과 영국 정부에 촉구함.
  - 업계 자율에 맡기던 기존 관행을 깨고 법제를 강화해 고용 평등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함.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5893](http://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5893))

## 9. 포인트, 전자머니...마음대로 골라 계산하세요 (도쿄都 메구로區)

○ 도쿄都는 상점가가 지역주민, 대학, 기업, NPO 등과 연대해 환경, 복지, 관광 등의 지역수요에 대응한 지역 살리기 및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그 중 하나가 지역연대형 모델상점가 사업인데, 최근 ‘메구로 상점가 포인트 시스템 구축사업’이 완성됨.

- 이 사업은 교통카드를 활용한 전자머니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전자머니와 상점가 포인트,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단말기를 점포마다 설치해 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
- 현재까지 약 70개 점포에 단말기가 설치됐음. 메구로區는 앞으로 단말기 설치 점포수를 늘릴 방침으로, 2010년까지 3000점포를 목표로 하고 있음.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8/03/20i34400.htm](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8/03/20i34400.htm))

## 건강 · 복지

### 10. 세대 간 통합센터에서는 세대차이 없어 (런던)

○ 런던市 머튼區는 노년층과 유·청소년 및 청년 세대가 조화롭게 거주할 수 있는 ‘세대 간 통합센터’(Intergenerational Center) 사업의 대상지역으로 선정됨.

- 런던개발청이 주관하는 이 프로그램은, 세대와 지역사회 간 분리·분열 현상을 극복하고 지역사회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노년층과 유·청소년, 청년층의 여가를 위한 문화시설, 운동시설, 직업훈련 및 컴퓨터 시설을 한 곳에 설치하는 사업임.

·150만 파운드(약 29억 원) 예산을 들여 2009년 중반에 완료할 예정임.

- 런던市는 세대차이가 소외계층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번 사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문화를 장점으로 살려 조화로운 도시로 발돋움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5933](http://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5933))

([www.lda.gov.uk](http://www.lda.gov.uk))

#### >>> 전문가 검토의견

- 런던市의 통합센터는 각 연령집단을 위한 서비스의 단순한 공간적인 통합이 아니라 공동참여를 통해 세대 간 단절 해소를 목표로 한 새로운 시도의 시설임.

·통합센터는 지역사회의 개별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노인 및 청소년 서비스 간의 연계와 협력관계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서비스 효과와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임.

·단, 이러한 모델의 성공여부는 노년층과 청소년층의 특성과 요구의 공통점 및 차이점이 세밀하게 반영된 프로그램 개발과 실시·평가에 달려있음.

- 서울시의 경우 새로운 시설의 설치보다는 노인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관 등 기존의 시설을 활용해 세대 간 통합 프로그램(세대 공동체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김선자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sunjakm@sdi.re.kr)

## 11. 시립 도서관에 신개념 멀티미디어 서비스 실시 (파리)

○ 파리市 15구의 Marguerite Yourcenar 멀티미디어 도서관, 3구의 Marguerite Audoux 도서관, 9구의 Chaptal 도서관, 2구의 Charlotte Delbo 도서관 등에 새롭고 유익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임.

- 첫 번째 서비스는 ‘탐색하고, 배우고, 문서 작성하기’(Rechercher, apprendre, se former)로, 인터넷으로 학업, 언어, 운전면허, 구직 등의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테마별로 분류해 놓음.
  - 구직정보는 Kompas라는 구직 전문 정보사이트가 제공함.
  - 정보이용뿐 아니라 언어나 운전면허 등 각종 자격시험을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통해 직접 준비할 수 있음.
- 두 번째 서비스는 어린이를 위한 것으로, 별도로 마련된 어린이 멀티미디어 공간에서 컴퓨터로 놀이와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음.
  - 컴퓨터를 통해 동화나 이야기 듣기, 국립 사이버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유물 찾기 등을 할 수 있음.
  - 유해 사이트에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보호 프로그램이 설치됨.
- 도서관마다 목적과 연령에 따라 12개의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됨.
  - 한 사람 당 이용가능 시간은 1시간 30분이며 사전 자리예약은 필수임.
  - 2008년 여름부터 모든 정보를 무료로 인쇄할 수 있게 됨.

([www.paris.fr/portail/accueil/Portal.lut?page\\_id=1&document\\_type\\_id=2&document\\_id=50039&portlet\\_id=815](http://www.paris.fr/portail/accueil/Portal.lut?page_id=1&document_type_id=2&document_id=50039&portlet_id=815))



## 12. 임대주택 세입자에게 TV·인터넷·전화를 1유로에 제공 (파리)

- 파리市 저가 임대주택 사무소(L'Office HLM de Paris)는 저가 임대주택(HLM: Habitation à Loyer Modéré)에 사는 10만여 명의 세입자에게 월 1유로(약 1500원)에 텔레비전·인터넷·전화 통합 서비스를 공급할 계획임.
  - 현재 공영 임대주택에 제공되는 전화기 1대당 정액이용권이 한 달에 6.49유로(약 9900원)이므로, 이번 계획은 저렴한 가격에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 된 것임.
  - 세입자의 44%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파리市 임대주택 건물의 80%에 광케이블이 설치되면 고속 인터넷도 이용할 수 있게 됨.
  - 이번 계획은 파리市를 세계 제1의 디지털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파리 디지털 도시'(PARVi: Paris Ville Numérique) 계획 중 하나임.

([www.paris.fr/portail/accueil/Portal.lut?page\\_id=1&document\\_type\\_id=2&document\\_id=50054&portlet\\_id=815](http://www.paris.fr/portail/accueil/Portal.lut?page_id=1&document_type_id=2&document_id=50054&portlet_id=815))

## **방재 · 안전**

## 13. 토사재해 경보 운용 시작 (도쿄)

- 도쿄都는 2008년 2월부터 토사 재해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한 토사재해 경보 운용을 개시함. 토사재해 경보는 집중호우로 인한 절벽 붕괴나 토석류(土石流) 발생 위험이 높아졌을 때 발표하는 것임.
  - 도민에게는 대피 판단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각 區 및 지방자치단체에는 방재활동이나 대피 권고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함.

- 도쿄都와 기상청이 공동으로 발표하면 각 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재 무선이나 텔레비전, 라디오 대중매체를 통해 도민에게 알려짐.
- 각 區가 피난 권고나 피난 지시를 하면 지시에 따라 대피해야 하고, 대피 지시가 없더라도 절벽 근처 등에 있으면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www.koho.metro.tokyo.jp/koho/2008/02/dosha.htm](http://www.koho.metro.tokyo.jp/koho/2008/02/dosha.htm))

## 도 시 환 경

### 14. 굴 양식으로 운하 자연정화 추진 (뉴욕)

- 최근 굴이 물을 정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뉴욕市는 운하에 자연정화를 위한 굴 양식장 건설을 논의 중임.
- 굴의 크기나 물 온도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굴은 하루에 최소 약 19~190리터의 물을 정화할 수 있다고 함.
- 이 과정에서 굴이 질소, 조류, 박테리아를 흡수해 바닥의 침전물에 퇴적함.
- 굴 양식장은 물 속 다른 폐기물을 흡수해, 다른 물고기의 서식지 역할을 하는 거머리말류와 같은 해양생물을 도와주는 생태계의 기반이 되기도 함.
- 한때 뉴욕의 운하에는 약 906km<sup>2</sup>에 걸쳐 천연 굴 서식지가 조성돼 있었으나 과도한 굴 채취와 오염 때문에 1930년대 대부분 멸종됐음.

([www.planetizen.com/node/29882](http://www.planetizen.com/node/29882))

## 15. 주유소에서 대체에너지 'E85' 가득이요 (캘리포니아주)

○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온실가스 감축과 대체연료 이용 정책을 공표하고, 2007년에 관용차량이나 스쿨버스 등 공공서비스 부문 차량에는 전기, 액화석유가스(LPG), 압축천연가스(CNG) 같은 대체에너지를 사용하도록 함. 최근에는 'E85'라는 대체에너지가 알려지면서 가변연료자동차(FFV: Flexible-Fuel Vehicle)를 소유한 운전자의 큰 호응을 얻고 있음.

- E85는 85%의 에탄올과 15%의 가솔린이 혼합된 대체에너지로 아직은 캘리포니아주에 주유소가 7개만 있고, 그 중 3개의 주유소에서만 시민이 이용할 수 있음.

·가격이 일반 가솔린보다 비싸지만 환경을 생각하는 운전자가 늘고 있어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음.

·가변연료자동차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GM社의 지원으로, 낮 12시~오후 2시 E85 연료를 갤런당 85센트에 판매하는 이벤트도 진행됨.

- 캘리포니아주는 주유소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더 많은 주유소에서 대체에너지를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나아가 온실가스 감축방안으로 가솔린 첨가제에 에탄올 함량을 증가할 계획임.

·기존의 가솔린에는 5.7%의 에탄올이 첨가돼 있으나 2010년부터 에탄올의 함량을 10%로 늘릴 계획임.

([www.latimes.com/news/science/environment/la-fi-biofuels26feb26,1,5759451.story](http://www.latimes.com/news/science/environment/la-fi-biofuels26feb26,1,5759451.story))

### 한줄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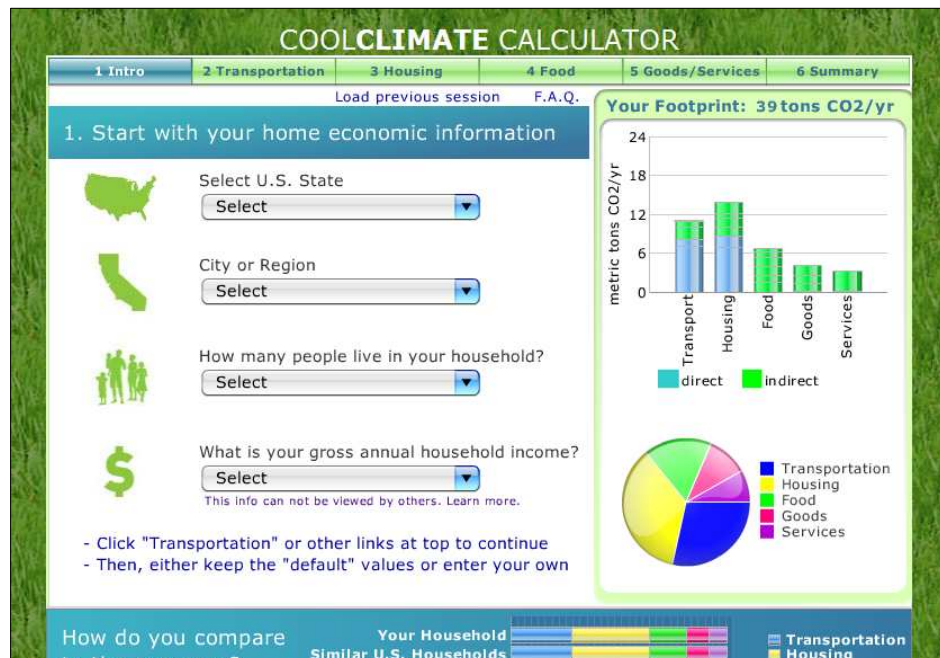
<브라질>

- 상파울루市, 노숙자에게 주거보조비로 월 300헤알(약 17만 원)씩 30개월간 지급할 계획

- 리우데자네이루市, 트랜스젠더의 취업과 사회생활을 돕는 '레이디 프로젝트' 실시

## 16. CO<sub>2</sub> 배출량은 ‘이산화탄소 계산기’로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시)

-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시 캘리포니아대 환경연구소와 자원재생에너지 연구소는, 시민의 일상생활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소비 결정이 지구온난화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이산화탄소 계산기’ 웹사이트를 개설함.
  - 이산화탄소 계산기는 시민과 기업의 활동이 지구온난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보여줌.
    - 개인, 기업, 도시가 교통, 주택, 생활양식 측면에서 연간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지를 측정할 수 있음.
    - 측정결과는 미국의 28개 대도시 지역과 비교할 수 있음.
  - 캘리포니아대 환경연구소 관계자는 에너지 자원, 대중교통수단, 지역 식량과 에너지 가격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으면 지역과 도시에 적합한 계산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함.



이산화탄소 계산기 웹사이트([bie.berkeley.edu/calculator.html](http://bie.berkeley.edu/calculator.html))

([www.berkeley.edu/news/media/releases/2008/02/28\\_carboncalc.shtml](http://www.berkeley.edu/news/media/releases/2008/02/28_carboncalc.shtml))

## 17. 항구에 친환경 ‘철도 화물적하장’ 건설 추진 (로스앤젤레스)

○ 로스앤젤레스市 버링턴 북 산타페 철도회사 대표는 로스앤젤레스 항구와 롱비치 항구 인근에 300만 달러(약 30억 원) 규모의 철도 화물적하장을 건설하고자 제안함.

- 철도화물 적하장은 현재 롱비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화물트럭을 대체하는 것으로, 철도와 연결되는 화물적하장을 건설함으로써 대기오염을 줄이고 710번 도로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 계획이 승인되면 친환경 트럭으로 화물을 운반하고 전기 크레인을 이용해 천연가스 열차에 화물을 싣게 됨.

- 철도회사는, 국제물류 확대에 항구가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일자리 창출효과를 강조하는 내용의 DVD 홍보물을 영어와 스페인어로 제작해 인근 거주자와 관계자에게 배포하는 등 순조로운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www.latimes.com/news/local/los\\_angeles\\_metro/la-me-bnsf26feb26,1,6887335.story](http://www.latimes.com/news/local/los_angeles_metro/la-me-bnsf26feb26,1,6887335.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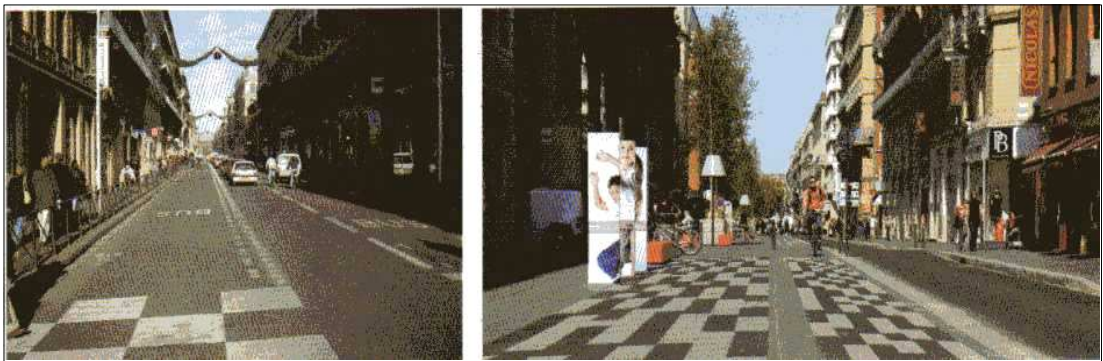
## 도 시 교 통

## 18. 상업로에 자전거 도로·보행로 조성 (프랑스 툴루즈市)

○ 2007년 9월 말 프랑스 툴루즈市에 있는 주요 상업로인 알자스로렌 거리에 자전거 도로 및 보행로가 조성됨.

- 툴루즈市에서 20년 전에 진행됐던 중심가 도시계획이 실패함에 따라 알자스로렌 거리는 버스와 자동차로 혼잡한 상태임. 그 결과 트램웨이라는 전차보다 지하철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최근 새로운 보행도로 계획을 통해 다시 도시 대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됨.

-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 두 달 만에 일을 마무리해야 했으며, 프로젝트 담당자는 매일 아침 도로상황과 공간 활용을 관찰해 그 결과를 꾸준히 지역 신문에 발표했다.
- 이는 2009년에 있을 전반적인 도시개발 계획에 앞서 열린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고, 토론과 의견수렴 후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데 합의를 이끌어냈다.
- 특히 이번 알자스로렌 거리 도로계획은 툴루즈市를 2013년 ‘유럽의 문화수도’ 후보로 선보이기 위한 캠페인의 지원을 받아 추진됐음.



알자스로렌 거리 공사 전(왼쪽)과 이후 모습(오른쪽)

(Urbanisme, 2008년 1·2월호)

### >>> 전문가 검토의견

- 툴루즈市의 보행자와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은 이미 1990년대부터 시작된, 프랑스와 유럽의 도시들이 도로를 자동차에서 도시의 주인공인 시민에게 돌려주는 캠페인의 일환임.
- 툴루즈市의 도로 정비에서 괄목할 만한 것은 짧은 시간에 도심의 주요 상업지 거리를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로 전환하는 데 있어 성공적으로 협상을 이끌어냈다는 점임.
- 1985년 그리스 문화부의 제창으로 유럽 문화도시라는 명칭으로 출발한 유럽 문화수도 정책은 1999년부터 유럽정부와 의회가 직접 주도하기 시작했고, 전 유럽 도시를 대상으로 후보 도시를 선정하고 있음.

- 유럽 문화도시의 후보로 선정된 도시는 유럽 정부와 의회로부터 문화도시 정비를 위한 재정지원을 받게 됨.
- 서울시의 경우 걷고 싶은 거리 정책이 확산되고 있으나, 시민이 안전하고 편하게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편임.
- 우선 서울의 중심지이며 상징적인 위치에 있는 시청 주변 무교동길을 보행자와 자전거를 위한 도로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또한 유럽의 문화도시 정책과 같이 서울시 자치구의 문화거리 정책을 계획해 매년 각 자치구의 주요거리를 도시경관과 문화적 요소를 포함한 걷고 싶은 문화거리를 확산해 매력있는 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함.

/홍석기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skhong@sdi.re.kr)

## 19. 지하철 주차장 건설로 대중교통 이용 장려 (브라질 상파울루市)

- 브라질 상파울루市 지하철공사는 지하철역 가까이에 16개의 주차장을 마련해 주차하도록 하는 지하철 주차장 프로젝트를 도입하고, 지하철·자동차 통합카드를 발행할 계획임.
- 시정부는 카드 이용자가 직장까지 자동차를 가져갈 필요 없이 원하는 지하철역 주차장에 주차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할 목적임.
- 상파울루市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市의 교통 순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대기오염도 줄어듦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이 카드는 지하철역 매표소에서 충전할 수 있으며, 지하철역 부근 지정 주차장을 이용하는 운전자는 1일 지하철 이용권을 얻게 됨.
- 지하철·자동차 통합카드는 약 20회 정도 사용할 수 있으며, 주말이나 휴일에도 사용할 수 있음.

- 이 프로젝트가 시행되면 현재도 하루에 300만 명이나 이용하는 지하철을 더욱 포화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있자, 시정부는 지하철 차량 수를 늘리는 것은 물론, 무전 통제 시스템을 통해 각 열차 간 운행 간격을 80초로 줄여 시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힘.

(oglobo.globo.com/sp/transito/mat/2008/02/25/metro\_estuda\_criacao\_de\_16\_bolsoes\_de\_estacionamento-425942134.asp)

## 20. 신체장애 학생에게 특별 대중교통수단 제공 (브라질 쿠리치바市)

○ 브라질 쿠리치바市는 브라질에서 유일하게 신체장애 학생을 위한 특별 대중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있음.

- 3개 시립학교, 시정부와 협력 관계에 있는 34개 특별교육센터의 신체장애 학생 2200명에게 교통편을 제공함.
  - 학생 대부분이 15세 미만임. 15세 이상의 신체장애 학생은 자율성 및 독립심을 길러주기 위해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있음.
  - 요금은 면제되며, 신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음.
- 쿠리치바市는 신체장애를 가진 저소득층에게 사회활동기금을 통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연간 약 6000명이 사용하고 있음.
  - 신체장애 정도에 따라 보호자에게도 대중교통 이용카드를 무료로 제공함.

(www.curitiba.pr.gov.br/Noticia.aspx?n=12434)



## 도시계획·주택

### 21. 지붕에 나무 심는 ‘살아있는 지붕’ 연구 (런던)

○ 런던市 도시설계디자인위원회(Design for London)는 민간업체인 Alumasc社와 공동으로 ‘살아있는 지붕’(Living Roof) 연구사업을 추진해 2008년 런던市에서 열리는 건축도시환경전(Eco Build)에서 선보일 계획임.

- 살아있는 지붕과 벽 건축기술 개발을 통해 얻은 Alumasc社의 노하우는 2008년 2월 초 개정 보완된 런던 플랜(London Plan)에 반영됐음.
  - 도시설계디자인위원회는 살아있는 지붕사업이 지구온난화 대책이면서 지속가능한 도시 배수시설이 될 수 있으며, 이밖에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지붕 활용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다양한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함.

- 살아있는 지붕은 건물 지붕에 수목을 심어 정원을 만들거나 테라스와 같은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친환경 건축기술임.
  - 2003년 런던시장 건축자문위원의 제안에서 시작해 생태가 강조된 녹색 지붕과 여가시설 측면이 강조된 여가지붕으로 다양하게 적용·발전해왔음.
  - 2008년 2월 초 런던 플랜에 반영됨으로써 공식적인 市 정책으로 추진됨.

([www.lda.gov.uk/server/show/ConWebDoc.2505](http://www.lda.gov.uk/server/show/ConWebDoc.2505))

([www.london.gov.uk/gla/publications/environment/livingroofs.pdf](http://www.london.gov.uk/gla/publications/environment/livingroofs.pdf))

([www.london.gov.uk/thelondonplan/policies/4a-11.jsp](http://www.london.gov.uk/thelondonplan/policies/4a-11.jsp))

#### >>> 전문가 검토의견

- 런던市의 ‘살아있는 지붕’ 연구사업은 도심에 녹지공간을 늘리고 온도조절 효과 및 쾌적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 사례임.
  - 건물 지붕을 식물로 피복해 정원이나 테라스로 이용하는 친환경 건축기술이 계속 개발·보급되고 있으나, 현장에 맞는 시공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 및 연구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해야 함.
  - 런던市는 연구개발된 녹화기술이 市 정책으로 반영돼 도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했음.

-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는 옥상공원화 사업을 확산하기 위해 관련 시공업체와 건설기술연구원을 포함한 연구기관과 연계해 연구 지원 및 협력을 추진해왔음.
- 2007년부터 ‘10만 녹색지붕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녹화대상 건물의 건물주 및 관련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뿐 아니라 공사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음.
- 하지만 벽면녹화 기술의 보급은 아직까지 기술적인 한계가 있고, 건물주 역시 벽면녹화에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적용에 어려움이 있음.
- 민간의 연구개발 노하우를 적극 발굴하고 정책으로 연계함으로써 도시녹화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김원주 도시기반연구본부 부연구위원(wjkim@sdi.re.kr)

## 22. 노인 맞춤형주택 건설 추진 (영국)

○ 최근 영국정부는 ‘고령사회의 주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고령의 노인 삶에 적합한 주택 건설전략을 발표함.

- 정부는 휠체어나 승강기 의자(chairlift)가 이동할 수 있는 계단이나 현관을 만들어 노인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주택을 건설하자고 강조함.

- 16개 항목의 ‘평생주택표준’(Lifetime Home Standards)을 정해 2013년까지 새로 지어지는 주택에 적용할 예정임.

- 2011년부터 모든 임대주택은 노인을 고려한 표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해 지어짐.

- 노인친화적인 근린주구와 도시 건설도 진행될 예정임.

- 도시농촌계획협회는, 경제력과 건강관리 등이 인간의 수명을 연장함에 따라 노인이 좋은 주택에서 독립되고 안락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함.

([www.planningresource.co.uk/bulletins/Planning-Resource-Daily-Bulletin/News/785948/New-homes-plan-help-ageing-population/?DCMP=EMC-DailyBulletin](http://www.planningresource.co.uk/bulletins/Planning-Resource-Daily-Bulletin/News/785948/New-homes-plan-help-ageing-population/?DCMP=EMC-DailyBulletin))

## 23. '10년 후의 도쿄-실행 프로그램 2008' 수립 (도쿄)

- 도쿄都是 '10년 후의 도쿄-실행 프로그램 2008'을 수립함. 10년 후의 도쿄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한 3개년 행동 계획으로 8개의 목표와 39개의 구체적인 시책을 내걸.
- 사업비는 3년간 약 1조 7000억 엔(약 16조 원)이고, 2008년 사업비는 약 4700억 엔(약 4조 4600억 원)임.
-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음.
  - 물과 초록에 둘러싸인 아름다운 거리 도쿄 부활
  - 환상(環狀) 도로 조성을 통해 도심부의 만성정체 해소
  - 세계에서 가장 환경부하가 적은 도시 실현
  - 재해에 강한 도시 조성으로 수도 도쿄의 신용도 제고
  - 세계 최고의 초고령 사회 도시모델 창조
  - 도시의 매력이나 산업력으로 도쿄의 존재 확립
  - 의욕 있는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사회 창출
  - 스포츠를 통해 차세대를 담당할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줌.
- 都是 10년 앞을 내다보며 착실하게 시책을 전개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행정 개혁을 추진해 21세기의 도시모델 실현을 향한 선진적인 대처를 진행해 나갈 계획임.

([www.koho.metro.tokyo.jp/koho/2008/02/10nengo.htm](http://www.koho.metro.tokyo.jp/koho/2008/02/10nengo.htm))